

모내기철 가뭄 피해 최소화 총력

무주군, 가뭄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농업·발작물 용수 확보 최선

무주군이 가뭄이 지속되면서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에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발빠른 대책을 세우고 있다.

무주군은 장기간의 가뭄으로 모내기철 농업용수 확보 및 발작물 용수 공급을 위한 가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확보된 저수율 56.2%로 모내기가 완료되는 6월 중순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달 이상 가뭄이 지속되면서 발작물의 경우 작물 생육 부진 및 재배 수량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주군 관내 평

균 강수량은 33.67mm(8일 오전7시 기준)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가뭄 취약지역 저수지에 대한 저수량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취수가능 저수지 또는 관내 뚝방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중·소형 관정을 개발 중에 있으며, 대형 관정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천 하상굴착 및 양수장비를 동원해 급수를 운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을 중심으로 가뭄피해 농경지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용수원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2차 추경예산 확보 등)에도 총력을 쏟기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업인들이 많은 영농불편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농업용수리 시설 관리점검 및 가뭄긴급대책사업을 통해 가뭄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군수는 지난 3일 6월 청원 월례조회에서 "오랜 가뭄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이다. 농작물이 말라가고 하천바닥이 드러나는 등 정말 심각한 국면이다"며 "가뭄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천마 기능성 연구소재 개발 돌입

무주군, 천마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본격 추진

무주군의 대표 특산작물로 꼽히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천마 연구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천마복합처방을 활용한 뇌 인지 기능 개선 및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사업을 이달말까지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으로 천마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참여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험포장내 에어하우스 연구동을 마련해 연구가 시작되며, 천마 수직재배 시스템 구축과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및 열처리, 프라즈마 살균시스템을 설치하고 천마 시설 재배를 위한 종자처리 및 자마를 식재한다.

이로써 스마트시설 활용에 천마 생산뿐만 아니라 천마 추출물을 이용해 인지기능 개선 효능을 탐색하고 임상시험과 천마복합처방 제품개발, 시험평가 등 다양한 연구를 기관 과제별로

수행해 뇌 인지기능 개선 개별인정 획득을 위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정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천마 기능성 연구소재 개발이 성공을 거둘 경우보다 폭 넓은 천마 가공식품의 활용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천마 농가의 새소득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또 천마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소재 생산과 함께 기술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기술연구와 연구개발팀 이장원 팀장은 "천마 연구를 통해 뇌 인지기능개선 소재로 인정되고 제품화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은 건강지향적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소재 발굴과 함께 천마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천마는 지난 2001년 9월 1일부로 식약청의 식품원료 분류에 식품의 주원료로서 사용 가능한 식품으로 분류 돼 가공식품으로서의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차질없이 추진

장수군, 대책회의 갖고 추진상황·대응 방안 등 논의

장수군은 지난 8일 회의실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

며, 미이행 시 해당 단위유역의 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달성을 위해 축산과, 간설교통과 등 인·허가 및 개발사업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진행 시 계획단계에서 각 부서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추후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배행근 행정복지국장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주 오염원인 축사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간 수질오염총량 사전 협의를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청정한 장수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지난 8일 회의실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진안군,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진행

진안군은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건강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강건강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시대를 살아갈 관내 지역주민을 위해 6월 2일~29일을 구강보건 강조의 달로 정하고 다채로운 구강건강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장날을 맞아 진안재래시장 및 터미널, 상가, 관내 기관 등을 방문해 군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치아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이 밖에도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18개소 400여명을 대상으로 유아기 구강관리 습관형성을 위해 보육교사 및 학부모와 연계할 수 있게 구강건강체

험 꾸러미와 교육자료 지원을 실시하고, 점심식사 후 올바른 잇솔질 실천, 깨끗한 손씻기 지도,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체험 등을 진행했다.

또한 관내 초·중·고 28개교를 대상으로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및 치면세마 등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노년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복지타운 및 시회 복지시설, 경노당을 순회하며 노년기의 구강위생의 필요성과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예방 시술 등을 진행하는 등 모든 연령층에게 맞는 구강 교육과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전북도, 쏘가리 치어 3만 5천여 마리 방류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전북도와 협력해 9일 내수면 자연생태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쏘가리 치어 약 3만 5천여 마리를 용담호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종은 쏘가리로 치어 크기는 전장 3cm 이상이며, 수산생

물 전염병 감사를 합격한 검증된 종자로만 방류가 이뤄졌다.

토속 어종인 쏘가리는 '민물의 제왕'이라고 불리며 관내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고급어종이다.

동작이 매우 민첩하고 지느러미에

독가시가 있어 우리나라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배스나 블루길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포식해 수산자원 보호에 유용하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 용담댐은 수질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으로 앞으로 하천 수질보전과 어족자원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하천 물놀이 지역 14개소 합동점검 실시

진안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관리 사전대비를 위해 윤일안반일암 등 하천 물놀이 지역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3일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점검은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수심 깊은 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 파악 △안전표지판 설치 대상지 파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군은 점검결과에 따라 훼손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강하고 기타 위험요인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물놀이 기간 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하천 물놀이지역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추진

장수군이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을 위한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집중점검에 나선다.

군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3주간 하절기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유통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관리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축산물의 판매·사용 금지 △생동 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금지 △영양업자의 위생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종진 축산과장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교육 등을 통해 계도 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